

# 한국남동발전 태양광 사업 사실상 불가능

한국남동발전이 추진중인 해남군 문내면 일대 태양광 발전소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 2016년 개인소유의 간척지 부지인 해남군 문내면 일대의 180만평에 대해 태양광 발전소 인허가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를 조건으로 해당 토지를 3년간 보증금 15억에 연간 3억원씩 총 9억원 기금에 토지를 임대해 추진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관계법령에 맞혀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

이와 함께 한국남동발전은 해당 토지에 대해 인허가를 득한 이후에는 2년내에 걸쳐 연간 30억원씩 총 60억원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이후 토지를 토지주들에게 상환하는 비상식적 임대차계약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또한 21년간의 토지임대료가 토지의 매입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조건도 모자라 지목변경을 통해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로 바뀌어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행정절차를 정부출자기관이 협세를 들여가며 추진중인 것이다.

이런 한국남동발전은 간척지 부지인 해당 토지가 인허가 조건이 완화되어질 것으로 판단했으나 2018년 5월 1일 시행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내 절대농지는 개발 예외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면서 개발이 불가능해진 것.

이로 인해 사업이 불확실해진 한국남동발전은 사업의 강행과 포기중 양 갈래 선택만 남겨 놓았다.

더욱이 역병을 요구한 남동발전 관계자는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추진에 회사 내에서도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 되어지고 있다"고 밝혀 책임자 문책 등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남동발전과 토지소유자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한국남동발전은 사업의 진행이 어려울 경우 언제든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계약의 유지와 해지는 전적으로 한국남동발전의 결정에 달려있다.

또한 지난 5월 1일 시행된 농지법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내 축사,곤충재배사,창고,저장고,버섯재배사등의 건축물에 한하여 태양광 발전설치가 가능할 뿐 절대농지는 시행령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즉 농업진흥지역내 절대농지는 규제 완화 조건에서 제외 된 것이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한국남동발전이 추진중인 해당 토지는 태양광 사업이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절대농지가 대부분인 해당부지에

## 인허가 불가능...조속 사업 포기 촉구

### 2년 새 혈세 6억 낭비 '책임론' 대두

태양광발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한국남동발전과 출자기관인 한국전력의 자회사 관리감독 소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 할 전망이다.

실제 본지가 수차례 거쳐 해당토지에 대해 제기된 토지주들의 경제적 특혜논란과 사업추진 불가 의혹 등에 대해 한국남동발전은 그동안 답변을 회피하는 등 꺼림칙한 행보로 일관해 오고 있다.

해당 토지주들이 이 지역 굴지의 건설사 사주들로 알려지면서 한국남동발전과 토지주간의 묘종의 커

넥션 의혹도 제기되는 등 특혜 논란에 대한 끊임없는 주변의 시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해당부지는 한국남동발전의 계획에 의하면 전방대를 비롯한 부대시설들이 유원지 수준의 개발이 포함되어진 것으로 알려져 결국 태양광 발전을 앞세운 부동산 개발 행위의 단초로 보인다.

정부가 한국남동발전이 앞장서 개인의 사익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며 무리하게 조성하려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지금이라도 당

장 그 개발을 중지되어야 한다.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이 주요 국책사업이라면 해남 문내면의 해당부지 보다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해남 산이면 일대 20만평이 오히려 최적지일 것으로 보인다.

상호 두 기관간의 유기적 이해관계만 정립된다면 오히려 개인사유지의 개발보다는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결국 무리한 사업의 진행은 혈세의 낭비와 토지주들의 배반 불리한 줄속 행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한 것.

한국남동발전의 조속한 사업 결단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해 보인다.

서은홍 기자



스케이트 타면서 더위 날려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22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에서 시민들이 스케이트를 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 폭염에 온열질환자 800명 돌파...이달에만 6명 사망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만 6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지난 7월 18일까지 전국적으로 80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8명이 사망했다. 이달 사망자가 6명이다.

시기별로 보면 6월 마지막주(6월 24~30일)에는 온열질환자가 46명이었으며, 7월 첫째주(7월1일~7일) 52명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폭염이 본격화 된 7월 둘째주(7월8일~14일)에는 265명으로 급증했다.

7월 셋째주의 경우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 동안에 환자가 315명이 발생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모습이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59세(181명), 60~69세(130명)으로 중장년, 노인 환자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별로는 12~13시(94명), 13~14시(64명) 등 한 낮 뿐만 아니라 15~16시(94명), 16~17시(85명), 17~18시(71명) 오후 시간대에도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열탈진(418명)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열사병(193명), 열경련(6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올해 여름은 한반도 열돔 현상으로 폭염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는 만큼 각종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폭염과 열대야가 예보돼 있는 경우에는 건강수칙 준수에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기에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시에는 갑증을 느끼기 이전부터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하며,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폭염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가능한 위험시간대(12시~17시) 활동을 줄이고,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뉴스스

## 택시서 흡연하고 기사 폭행 만취 4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21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기사를 때린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양모(49)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양 씨는 이날 오전 4시에 광주 서구 유촌동 한 사거리를 지나던 택시 안에서 기사 이모(56) 씨의 손목을 잡아 비튼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한 양 씨는 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이를 항의하는 이 씨에 격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앞서 새벽시간대 교통신호를 지키느라 늦게 건너며 이 씨와 다투던 것으로 조사됐다.

## 음주 운항해 낚시어선 충돌 40대 선장 검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고 낚시어선을 들이받은 4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21일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4.99급 어선의 선장 A(4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8분께 여수시 화정면 월호도 남서쪽 180m 해상에서 낚시객 B(49)씨 등 22명이 승선해 있는 낚시어선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부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조사결과 A씨가 운항하는 어선은 전날 오후 1시에 출항해 조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072%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졸음으로 인해 낚시어선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 도박 스캠 문자 44만건 발송 일당 적발

전남경찰청은 20일 타인 명의로 개봉한 선불유심(USM)을 공기에 띄워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를 발송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총책 심모(46)씨를 구속하고, 일당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불법 개봉한 대포유심 238개를 이용해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스캠 문자 44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공급·도포·개통채 등으로 역할을 나눈 이들은 인터넷에 '유심 개봉 명의 대여자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들에게 개인 정보를 받은 뒤 유심 개봉신청서를 대리 작성하고 평균 3만원 가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다른 사람 명의 유심을 휴대폰 공기에 띄워 문자 발송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온라인카지노와 사설 스포츠도박등을 광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뢰로 수사를 벌여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김정환 기자

## 70대 자산가 접근수억 가로챈 유부녀 구속

이혼녀 행세를 하면서 70대 자산가에게 접근해 수 억원을 가로챈 40대 유부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2일 A(41·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소개로 만난 B(73)씨가 자산가임을 알고 이혼녀라고 속이고 접근해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채 빚을 못 갚으면 구속된다. 돈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며 B씨를 속여 5억1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고령으로 청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악용, B씨에게 전화해 "나는 00이 언니이다. 00이 사채 빚을 못 갚아 구속될까 같은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속이는 등 마치 언니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는 수법으로 3억40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1인2역은 인정하지만 돈을 무상중여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갚을테니 고소하지 마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다수 보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업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이농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대해 부채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